

# ‘바이올린 代母’가 교정을 떠나던 날

동서남북



김성현  
문화부 차장

예전 서울 서초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중) 음악원에 취재차 들르면 학교 복도까지 들리던 고향 소리가 있었다. 심중팔구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한국 바이올린의 대모’ 김남윤 명예교수의 연구실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고향 소리는 언제나 같았다. “데!” “길게!”

연주하는 음을 더 크게 표현하거나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지속시키라는 스승의 엄명이었다. 생전 김 교수는 아침 9시면 학교에 나와서 샌드위치와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하면서 하루 8~9 시간씩 연달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열강(熱講)으로 유명했다. ‘하루 연습을 거르면 자신이 그 사실을 안다. 이틀이면 비평가가 안다. 사흘이 되면 정중이 알게 된다’는 말을 연구실에 붙여 놓았다. 제자들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었다. 스승의 잔소리는 비단 악보 해석이나 연주법에만 그치지 않았다. 복장이 조금만 단정하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에 흐트러짐이 보여도 어김없이 행동이 떨어졌다. “평상시 습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주에도 스며든다”는 것이 고인의 철학이었다.

혈액암으로 투병했던 고인은 지난날

까지도 음악 영재들을 기르는 한예중 산하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휠체어를 타고서 나왔다. 직접 가르치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고인이 습관처럼 했던 말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죽을 수 있다 면 소원이 없을 것”이었다. 자신의 다짐을 말 그대로 지키는 모습도 처음이었다. 부군 이승호씨도 “남윤이는 병상에 누워서도 제자들이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거나 콩쿠르에 입상했다는 소식만 들으면 미소를 지었다”고 회고했다.

여기까지는 음악계에도 비교적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다. 하지만 음악계 외 이달 세상 떠난 **故 김남윤 교수 암 투병 중에도 학교 찾아와 熱講 제자 꾸짖으면 옆방서 홀로 눈물 그의 가르침이 ‘음악 강국’ 만들어**

인들조차 잘 몰랐던 내용도 있다. 생전 고인은 제자들을 무섭게 꾸짖고 나면, 언제나 옆방의 동료 교수실로 달려가서 눈물을 쏟았다. 자신의 가르침을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자신의 질책이 혹시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자책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바로 옆방의 동료 교수였던 피아니스트 김대진 한예중 총장은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고 고인의 모습은 제게도 무언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했다.

한국 클래식 음악계가 눈부신 비약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을 꼽으려면 언제나 두 가지를 든다. 1993년 한예중 음악원 설립과 1998년 시작된 금호영재콘서트다. 음악 영재들의 재능을 조기 발굴하고 실전 무대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해외 유학 없이도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 두 사건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음악인이 김남윤 교수다.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강종모·김대진 같은 스타 연주자들과 함께 한예중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후학을 양성했고,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무대에 세웠다. 중견 교수부터 젊은 스타 연주자들까지 고인의 제자들을 일일이 적다 보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고인이 2005년 금호음악스승상을 단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지난 15일 한예중 음악원 교사(校舍) 앞에서 제자들과 음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추도식이 열렸다. 추도식이 시작하기 전부터 눈물바다를 이루는 광경도 처음이었다. 생전 고인의 일화가 소개될 적마다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추도식이 끝날 무렵, 유족과 제자들은 고인의 영정을 들고서 생전 고인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한예중 음악원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날 음악원에 걸린 추모 플래카드에는 생전 고인의 말이 적혀 있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될 때까지.” 이 말이 ‘음악 강국’ 한국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179]

## 스위스의 엔지니어링

스위스 하면 알프스의 청명한 하늘과 산, 푸른 초원과 맑은 호수가 떠오른다.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에서 생산되는 우유, 치즈, 초콜릿, 풍뎉(Fondue)나 라클레트(Raclette) 같은 음식도 연상된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 속에 심어진 집들은 하나같이 발코니가 뿔뿔이 장식되어 있고 조경이 아름답다. 유심비라 보면 기계 위에 올라앉아서 잔디를 깎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가파른 경사지를 타고 오르내리며 잔디를 깎는 기계의 구동력에 저절로 감탄이 나온다. 이 기계 한 대의 값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지만 웅만한 집에선 모두 한 대씩 구비하고 있다. 과연 부자 나라답다.

대학이나 로잔 공과대학의 교육 경쟁력도 든든한 배경이다. 스위스의 공업 기술은 ‘스위스 칼’로 알려진 빅토리노스(Victorinox)부터 각종 운송 수단, 중장비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 정밀공업은 여러 다른 장치에도 골고루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가 바의 테이블 위에 놓인 초미니 연기 흡입기는 바로 옆 테이블로도 연기가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예쁘다. 도심의 대중교통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버스보다 전기 버스와 전차가 많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시골 마을에서도 전기차와 케이블카, 산악 열차가 주요 교통수단이다. 이런 차량들 모두 탁월한 성능과 디자인, 군더더기 없는 간결함을 자랑한다. 경사지가 많은 산간 마을에는 언



덕을 오르내리기 편한 엘리베이터 장치들도 잘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사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자랑한다. 도시와 시골 모두에서 산과 호수, 초원에 돌아다니는 기계들은 그 배경의 자연과 꽤 잘 어울린다. 스위스는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디지털과 인공지능까지 첨단 산업 모두를 최고급으로 유지하는 대표적 강소국이다. 올해 우리나라와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늘 앞서나가는, 다소 부러운 스위스의 깨끗한 환경과 기술, 디자인을 생각해 본다.

뉴욕 FIT 교수-마이애미대 명예석좌교수

## 社 說

###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그와 관련한 사건의 본류인 대장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적용된 혐의는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다.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 중 하나만 사실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 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사전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씨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대표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남FC 사건에서도 네이비거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체에 걸쳐 총 40억원을 성남FC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요구 사항 이행에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

했다. 이제 법원이 진실을 가려야 한다.

문제는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이르르면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끝도 아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경선자금 의혹으로 그의 측근인 김용씨가 구속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이 대표와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혐의가 다 추가 기소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다.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정치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농기용 정치 공세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전 정권에서 이 대표 수사를 몽개기 식으로 하면서 사건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 선택을 한 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동영상 사설

### 10년 시간 벌었지만 ‘반도체 脫중국’ 지금부터 준비해야

미국의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정 조건만 지키면 향후 10년간 안정적으로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반도체 산업으로서 한숨 돌리고 10년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이 끝나지 않는 한 ‘중국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중추국 미국은 원천기술 보유국이며, 반도체 설계와 제조 장비 면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새로 짜겠다고 나선 이상 중국이 최대 수출 시장인 한국 반도체도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탈(脫) 중국’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미국은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을 끌어들이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대거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 정부는 국립 반도체 기술센터를 만들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노광 장

비에서 신소재 개발, 양자 정보통신까지 향후 반도체 산업을 이끌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반도체 패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차세대 반도체를 한국 기업에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게 허용할지는 의문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33조원, 35조원씩을 투자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금지 조치로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수준은 당분간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반도체는 한국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기회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한국과 미국에 집중하면서 미국이 주도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야 한다. 미국 중심 차세대 반도체 기술, 표준 개발에 한국의 기여도를 높여야 발언권이 커지고, 기술 협력 파트너로 존중받을 수 있다. 일단 그럴 시간은 벌었다.

### 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렸다. 지난해 말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일방 독주다. 정권은 내줬어도 방송 권력만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그 속내엔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인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 단체, 시청자 위원도 친(親)민주당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에 앉히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에도 이 비슷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막상 정권을 잡고 야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파기해버리고 KBS, 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다. 공영방송은 정권 응원단이 됐다. 그러더니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폐기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잃든 방송만은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악을 막는 일 못지않게 지난 정권의 방송 장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바꾸는 일도 중요한 문제다. KBS 사장을 교체하려는 정권을 위해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무리한 해임 건의안을 문 전 대통령에게 올린 곳이 방통위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주무 국장·과장·심사위원장이 얼마 전 구속됐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부 조직이 설립 취지를 스스로 허물었다. 방통위의 근본적 개선도 더 미룰 수 없다.

## 한·일 정상회담 분석 특별기획 ②

# 수천년 우리 괴롭힌 중화 제국주의 부활... 시황제 황사 몰려온다

시진핑, 한(漢)·당(唐)제국 능가 시(習)나라 황제 등극  
한민족 수천년 괴롭힌 중국, 괴물 되어 대한민국 압박하는데...

### 시진핑 중화 제국주의 對 마영일·호주·인도 주축 자유국가 연대

한·일 관계 정상화하는 '시진핑 중화 제국주의' 팽창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자유국가 동맹의 대결 속에서 그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

### 옛 한(漢)·당(唐) 제국 영광 부활, 우리에게겐 지옥문

'시진핑 중공'의 대전략은 일대일로 정책이다. 한(漢) 제국, 당(唐) 제국의 영광을 되살린다는 것이다. 인도양에선 이것이 '진주 사슬(String of Pearls)'이란 전략으로 작동한다. 중공의 '진주 사슬'은 [홍콩-미얀마 차우크 항(港)-방글라데시 치타 공항-스리랑카 콜롬보 항-파키스탄 수단 지부티-아덴만]을 잇는 전선이다. 미국은 중공의 '진주 사슬' 전략에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잇는 '쿼드(Quad) 동맹'으로 맞서려 한다. 최근엔 [한국-미국-캐나다-일본]을 잇는 '신 쿼드'도 논의되고 있다.

### 서해·남해·남중국해·동중국해, 모두 중국 바다 되면?

작전 면에서 중공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전투기, 잠수함, 재래식 함모, 이지스함, 미사일을 대규모로 배치했다. 이른바 접근 저지(AD : Access Denial) 작전이다. 미국과 일본도 '통행의 자유' 확보를 위해, 전함·미사일·AI 무기 계획으로 응수하고 있다. 미중 긴장은 당연히 외교전으로도 번져 있다. 미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의 '쿼드' 합세를 권하는 중이다. 북태평양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를 바란다.

### 천자(天子)된 시진핑, 군국(軍國)주의 쪽주 기속

이 신냉전을 배경으로, 중공은 양희(兩)를 열었다. 시진핑 천자(天子)를 3연임 하고, '군사 파시스트 중화제국'을 의도했다. 전시동원령, 전시범죄자 처벌, 해외군사 활동을 법제화했다. 계엄통치인 셈이다.

### 미·중 대결...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나?

안미경중(安美經中) 중간론?  
중공이 '자유·개방·번영·평화' 보장?  
정답은 '자유국가 연대!'

그렇다면 미·중 대결에서, 자유와 전체주의 대결에서, 한국 윤석열 정부와 자유 국민의 선택은 무엇이여야 할 것인가? 단연코 '인도-태평양 자유 연대'로 가야 한다. 자유인들은 ▲자유 ▲개방 ▲번영 ▲평화를 원한다. 이것은 오직 '힘에 의한 평화'로만 보장된다. 힘(안보)은 '자유국가 연대'에서 나온다. 돈(경제)도 거기서 나온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3월 18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광고형 기사'를 지원해주세요

18번째입니다.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